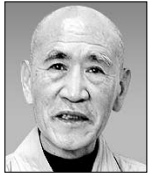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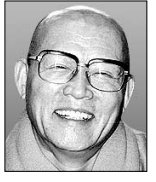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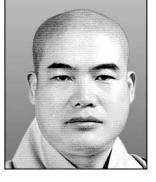
'노년기 사회...' 주제 특강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노년기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12월 9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관 2층 2강의실에서 특강한다. (02)737-8803



해룡불교작법 수강생 모집
해룡불교작법 전수원장 해우 스님이 불교 전통의식 작법(바리춤, 나비춤)과 예경의식을 교육할 해룡불교작법 전수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06)215-7749



신규 조교 100명에게 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도업 스님은 11월 24일 정각원 법당에서 신규 조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행교육과 수계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만남'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 불교사망연 회장 정수 스님은 12월 10일 오후 6시 중앙동 동방웨딩문화원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美 동부 주요 대학과 연구소 방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동부 주요 명문 대학과 연구소 등 7곳을 방문하고 학술교류를 논의한다.

“회원 늘리며 지성불교 확산에 노력”

교수불자연합회 새 회장 김용표 교수

교수불자들은 보살도 실천의 원력을 세우고 종단은 물론 지역과 대학 안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교수불자들의 그런 활동을 이끌어 내고 전 사회로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실행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교불련 입원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포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과 상당히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표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1월 27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표 동국대 교수(불교학과·사진, 김 교수는 교수불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정년 타개와 사무국 정비를 끝낸 김 교수는 “회비 납부 유도와 후원자 물색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는 한편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88년에 창립된 이래 16년이 흘렀지만 교불련 회원은 500여명인데, 전국의 5만여 명 교수 가운데 불자가 1%밖에 안 되겠느냐”고 되묻고 “교수불자들의 교불련 가입 유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퇴임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현행 전임강사와 교수로 자격요건이 제한돼 있는 정관을 개정할 것이

재정난 극복·사무국 강화 퇴임교수도 참여시킬 터

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제원호학회 원호전서영역연구실장,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편집위원장, 세계불교도우회의 한국본부 부회장,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 한국불교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능인선원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봉행된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

능인선원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

11월 27일, 1만여명 동참

간 흘러온 선원의 역사에는 신도들의 기도, 원력, 신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며 “이렇게 결집된 힘으로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건립하려는 불교대학 불사가 원만히 회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주지 영조 스님, 불암사 회주 일민 스님, 민주당 한희갑 국회의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세호 건교부 차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20년

간 흘려온 선원의 역사에는 신도들의 기도, 원력, 신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며 “이렇게 결집된 힘으로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건립하려는 불교대학 불사가 원만히 회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법회는 서울 대원여고 고적대 연주를 비롯해 능인선원 정법사, 헌법사단의 음악 만들기 퍼레이드, 능인선장과 금강회의 태극권 마스 게임, 지역대학 축하 응원전 등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제 2회 민족화해상 수상

평불협회장 법타 스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은혜사 주지·사진)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경향신문이 시상하는 제 2회 민족화해상을 받는다. 민화협은 11월 30일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족화해상 개인부문에 법타 스님, 단체부문에 (사)남북어린이 어깨동무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강사로 전액 불우이웃성금 기탁

구미 영명사 지범 스님

구미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사진)이 11월 22일 선산읍사무소를 방문, 불우이웃 87구의 병 치료비와 생계 지원금을 위해 써달라며 341만5200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지범 스님이 시민복지회관 요가교실의 강사로를 1년간 모셨다. 이 성금은 회귀난치성 질환 치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67구에 각각 50만원씩과 소년소녀가장들의 생계보조비로 지급됐다.



세계 변화 따른 활동 기반 마련

국제포교사회 새 회장 김봉래 기자

“국제포교사회가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제 4대 회장에 김봉래 기자(불교방송 보도부 차장·사진)가 11월 27일 열린 2004년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에서 36명의 재직회원 중 35명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됐다.



물론, 176명에 이르는 국제포교사들의 능력 배양 프로그램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국제포교사회 자체 연구와 영어 쉐플 스튜디오를 강화하겠다”는 김봉래 회장은 “외국어 능력 배양에만 치우쳤던 국제포교사들에게 관심을 키우고 불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선 등의 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경진 기자

“96년 국제포교사 시험을 칠 때만 해도 영어공부와 불교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자기 개발 목적이 강했지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보니 불교계에서 국제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 회장은 미8군 법회, 외국인 노동자 행사를 발전시켜야 함은

■노작·동서 문학상 詩 부문 수상 문태준 PD

“자연·인간 공생관계서 자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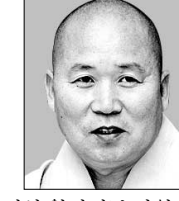
“불심이 시심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마음으로 시작(詩作)에 임하겠습니다.” 노작문학위원회(위원장 홍신선)와 동서문학사(대표 전숙희)가 주관하는 제 4회 노작문학상과 제 17회 동서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동시에 선정된 시인 문태준 PD(35·불교방송·사진, 문 PD의 수상작은 ‘어두워지는 순간’의 3편과 작년에 펴낸 시집 <맨발>이다.



그의 시는 “농촌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와 존재를 표현하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태준 PD는 내년 시집 <느림(가계)>을 출간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rami@buddhapia.com

해자 스님 유네스코 국제은관문화상

해자 스님(도선사 주지·사진)은 12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평화·인문·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은관문화상’을 받았다. 유네스코와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해자 스님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불교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도선사는 2005년 캄보디아 앵라지보 사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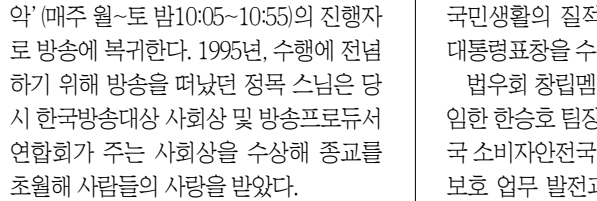
정목 스님 불교방송 MC 복귀

불교방송 개국당시 MC 1호로 인기를 끌었던 정목 스님(사진)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불교방송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매주 월-토 밤10:05-10:55)의 진행자로 방송에 복귀한다. 1995년,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방송을 떠났던 정목 스님은 당시 한국방송대상 사회상 및 방송프로듀서 연합회가 주는 사회상을 수상해 종교교를 조월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소보원 한승호 팀장 대통령상

한국소비자보호원법무회 한승호(47·사진)가 재조사회 서비스조사팀장이 12월 3일 ‘제 9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법무회 창립멤버로 제 1대 부회장을 역임한 한승호 팀장은 분청조정국 교육연수국 소비자안전국 등에서 근무하며 소비자보호 업무 발전과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력해 왔다. 특히 소비자안전국에서 위해정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제도의 발전에 공헌했다. 김은경 기자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은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능성 음악 및 뉴에이지 음악과 월드 뮤직으로 엮어진다. 조용수 기자

Advertisement for 'New Saichu' (新사주학) featuring 'New Saichu Core Conclusion' (新사주학 핵심비결) and 'Divine Prophecy' (신비의 영부적 대사건).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s content, author, and price.

Advertisement for 'Yoga's Importance' (영가천도의 중요성) and '12 Questions of Palmistry' (12품 팔상탐주). Includes a list of 12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palmistry and yoga.